

치 사

생명의 기운이 형형색색으로 봄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풀한 포기가 갖는 생명의 소중함도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향기로운 절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때에 홍천사 불화소 불빛전 ‘正統의 脈’을 개최하게 되어 축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홍천사를 중창하셨을 뿐만 아니라 초대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기능보유자였던 故 月洲 元德文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입니다. 한 평생 단청과 불교미술에 헌신하신 스님의 유작과 수제자로서 50여년 스승의 뜻을 이어가는 素雲 김용우 선생님의 작품세계를 동시에 엿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불교가 전래된 이후 1700여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불교가 국교로서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며 불교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웠던 시기도 있었지만, 시대상과 맞물려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한없이 위축되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흥쇠(興衰)는 불교문화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오늘의 불교문화가 융성할 수 있었던 양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작품활동도 정진의 연속으로 삼는 불교 미술인들은 내일의 불교를 만들어 가는 선도자의 위치에 있으며, 빼어난 불교문화를 이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뜻 깊게 마련한 ‘正統의 脈’ 전시회가 많은 분들에게 감동

을 전하고, 전통 불교미술 전승의 의미를 돌아보는 자리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불교미술의 미래가 한층 밝아지고 불
교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 힘쓴 흥천사 불화소 정념스님과 김용
우 선생님, 그리고 제자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 자리에 참석
하신 모든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
다.

불기2558년 4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